

# 인사말씀

2016. 2. 24. (수) 14:30~14:35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 I. 인사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중심가를 관통해서 남북을 크게 가로지르는  
부산시의 대동맥인 '중앙대로' 한 가운데에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금융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통합센터 출범을 위해 누구보다 힘 써 주신  
서병수 부산 시장님과  
이해동 市의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서민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희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간 묵묵히 소임을 다 해 주신  
실무 관계자들의 노고도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 II. 현장 중심의 서민금융 정책

여러분, 서민금융 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  
“현장 중심”으로,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추진되어야 합니다.

섬세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민 한 분 한 분의 자활·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일선’에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체감하실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민금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해 6월에는  
이용자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과 자활·재기에 중점을 둔  
‘1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低利의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이 가장 큰 애로로 꼽은  
‘금융이용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에는  
이용자 및 유관기관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2단계 서민금융 정책’으로서,  
채무연체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금융 정책이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네트워크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수요자가 한 번만 방문하면,  
생활자금, 창업자금, 신용회복 지원과 함께  
고용·복지 연계지원 등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현장 인프라’입니다.

앞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복잡·다기한 서민금융 정책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곳 통합지원센터만 방문하시면 종합상담을 거쳐  
지원·사후관리까지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천 통합지원센터 설립 후 1년여 동안,  
자금지원은 22%, 채무조정은 12% 각각 증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Ⅲ. 서민금융 관련 입법의 기대효과

여러분,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그간의 입법노력이  
조만간 결실을 거둘 전망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34.9%에서 27.9%로 낮추기 위한 「대부업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하여  
2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의 저신용·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이  
약 7천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서민금융 정책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흥원은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세심하고 촘촘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DB와 재원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약 300만건에 달하는 종합 DB를 기반으로  
이용자별 이력관리, 기존상품 평가, 신상품 개발 등이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된 서민금융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움이 꼭 필요하신 서민분들을  
한층 효과적·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 통합지원센터 등  
‘원스톱 현장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도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중 유관기관 지점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센터 전국망(총 32개소)을 구축하고,  
고용·복지+센터, 지자체 등에 ‘상담·지원센터’도  
약 1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으로,  
현재 민간단체인 ‘신용회복위원회’도  
법정 기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등이  
현재 약 3,600여개에서 약 4,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의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법정 기구인 신복위가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지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회생·파산으로 연계를 지원하는 등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법원 절차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워크아웃의 절차, 방법 등도 법제화됨에 따라,  
채무조정이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민금융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IV.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해  
잠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이대로 있다가는 한국거래소가  
‘2류 거래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해외 거래소들과 비교할 때  
수익성, 국제적 영향력, 상품다양성 등 모든 면에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 (예) '14년 ROE : 싱가포르SGX 35%, 홍콩HKEx 24% > KRX 4%

경쟁자인 일본·홍콩·싱가폴 등  
아시아 주요 거래소들은 지주회사 체제를 바탕으로  
유연하면서도 책임 있는 경영을 하고 있어,  
이들이 지역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임에 따라  
한국 거래소와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중국거래소들도 빠른 경제성장,  
거대한 시장규모 등의 우위를 등에 업고,  
한국거래소의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성장이 정체되면,  
거래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도  
그만큼 약화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개편되면,

각 거래소가 지주회사 아래에서  
시장운영을 책임지게 되어  
자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지주회사는 국제화 등  
보다 전략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의 묘미'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V. 맺음 말씀

---

여러분, 정부가 가장 잘 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을 받아 만물이 활기차게 자라난다는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는 말처럼,

서민금융의 溫氣를 통해  
더 많은 서민분들이 자활·재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금융의 등대'가 되어 줄  
진흥원 출범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2단계 서민금융 정책도  
빠른 시일내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산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축하드리며,  
모쪼록 이 곳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메마른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촉촉한 봄비와 같은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